

10 사람



대학 시절 흘린 땀은 지금의 어엿한 두 프로 선수를 있게 했다. 왼쪽은 재학 시절의 김영현 동문, 오른쪽은 재학 시절의 김종규 동문.



(사진=대학주보DB)

다시 만난 농구부 황금기 주역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해 행복”

서나는 기자 merlo@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김종규(스포츠지도학 2010) 선수
김영현(스포츠지도학 2010) 선수

김종규, 김영현(스포츠지도학 2010) 선수가 주축이었던 우리학교 농구부는 전국 최강이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둘은 한 팀에서 만나 소속팀의 정규시즌 우승을 이끌었다. 우리학교 농구부 창단 60주년을 맞이해 10학번 동갑내기를 만나봤다.

다시 만난 10학번 동갑내기

“나 DB랑 사인했어, 같이 뛰어보자” 수화기 너머로 김영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김종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최부영 전 감독과 식사하던 중이었다. 지난해 5월, 김영현은 10년간 몸담았던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를 떠나 김종규가 있는 원주 DB 프로미로 팀을 이적했다.

“종규가 DB에 있던 것이 이적에 크게 작용했죠.” 자유계약 신분의 김영현은 김종규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고민을 터냈다. 김종규는 친구이자 동료로서 김영현이 DB의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경기는 많이 뛸 수 있을지 등의 고민을 함께했다. “영현아, 네가 지금 잘하는 거 우리 팀에 오면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김종규는 이렇게 김영현을 설득했다.

김영현의 이적은 성공적이었다. 재회한 둘은 한 팀으로 만나자마자 DB의 정규시즌 우승을 이끌었다. 김종규는 골 밑을, 김영현은 외곽을 지키며 역할을 다했다. 둘의 활약 속에 DB는 KBL 통산 4번째 ‘와이어 투 와이어’(개막일부터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우승하는 것) 우승을 일궈냈다.

10년 만에 함께하는 훈련과 경기였지만 바로 어제까지도 함께 한 듯 죽이 척척 맞았다. “저도 수비에 자부심이 있는데 종규랑 같이하니깐 오히려 너무 편했어요.” 눈만 봐도 통했다. 그렇게 10년 만의 ‘우정 호흡’으로 들어 올린 트로피였다.

고된 훈련으로 일궈낸 농구부의 황금기

둘은 2010년, 우리학교 농구부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우리학교 농구부는 2011년 대학리그 전승을 거두며 화려한 등장을 알렸다. 2012년, 2013년까지 3년 연속 대학리그 정규리그 3연패, 2011년과 2012년엔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따냈다. 그

리고 4년 동안 93.9%(77승 5패)의 승률을 기록했다. 당시 성적은 우리학교 농구부 6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당시 우리학교 농구부 훈련은 고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프로팀이랑 연습 게임을 하고 지는 날은 학교까지 뛰어왔어요. 다들 해골이 됐죠.” 제2기숙사 옆 산을 세 번씩 왕복하는 건 일상이었고 2011년 연습 기록이 깨졌던 날에는 아무도 저녁을 먹을 수 없었다. 그때의 힘들음을 말하는 표정에서 전우애가 느껴졌다.

쉽지 않았던 프로에서의 10년

고된 훈련을 모두 이겨내고 대학을 졸업한 2013년, 각자 당돌한 소

감과 함께 김종규 1라운드 1순위, 김영현 1라운드 10순위로 프로 리그에 입성했다. 하지만 꿈꿔왔던 프로는 만만치 않았다. 두 동문은 대학 시절과는 또 다른 현실의 벽과 마주해야 했다.

김영현은 프로에 입성한 2013-2014시즌부터 약 10년간 총 74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쳤다. “언젠가 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겠다 생각했죠. 새벽까지도 혼자 운동하고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 김영현은 인정받기 시작했다. 2022-2023시즌, 김영현은 1군 정규리그 54경기 중 50경기에 출전했다. 수비상도 받았다. 시작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종규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정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진할 때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걱정과 부담이 항상 있었다. 부상으로 부진한 시즌이면 에이징 커브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도 원인을 파악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데에서 타파 방법을 찾았다. 부진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했다. 올라가기 위해, 또 내려가지 않기 위해 쌓아온 각자의 고민은 지금의 둘을 있게 했다.

챔피언 아쉬움 뒤로한 채 다시 한번 달린다

지난 5월, 김종규는 DB와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번에는 김영현의 설득이 시작됐다. “나는 너랑 1년간 같이 뛰어서 너무 좋았어. 우리 또 같이 하자.” 그때마다 김종규는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그에게도 김영현과 한 팀으로 뛸 1년이 특별했다. “예전에는 계약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돈이나 출전 시간 확보 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을 뛰면서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깨달았어요. 어딜 가든 힘들 테니 마음 맞는 친구랑 함께하자 생각했죠.” 그렇게 김종규는 DB와 재계약했고 다가올 시즌에도 둘은 한 팀으로 뛴다.

이번 시즌, 둘은 우승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함께 정규시즌 우승을 달성했지만 챔피언결정전에서는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규시즌 우승을 했을 때, 대학 시절을 재현한 것 같았냐는 질문에 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다. “프로에 와서 우승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보다는 ‘얼마나’ 이길지를 고민하던 시기였던 경희대 시절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두 동문에게 다가올 시즌은 또 한 번의 기회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죠. 각자의 역할에 더 충실하려고요.” 아쉬움이 남는 이번 시즌 챔피언결정전은 뒤로 하고, 새로이 다가올 시즌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올해로 15년 지기인 두 동문은 여전히 서로에게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다. 왼쪽부터 김영현 동문과 김종규 동문. (사진=서나는 기자)